

PREVIEW

권오상 개인전 <릴리프 릴리프>
Osang Gwon solo exhibition <Relief Relief>

전시기간 | 2016. 12. 16 금 – 2017. 2. 4 토
오프닝 리셉션 | 2016. 12. 16 금 18시
아티스트 토크 | 추후 공지



작업 프로세스 스틸컷_권오상

© 전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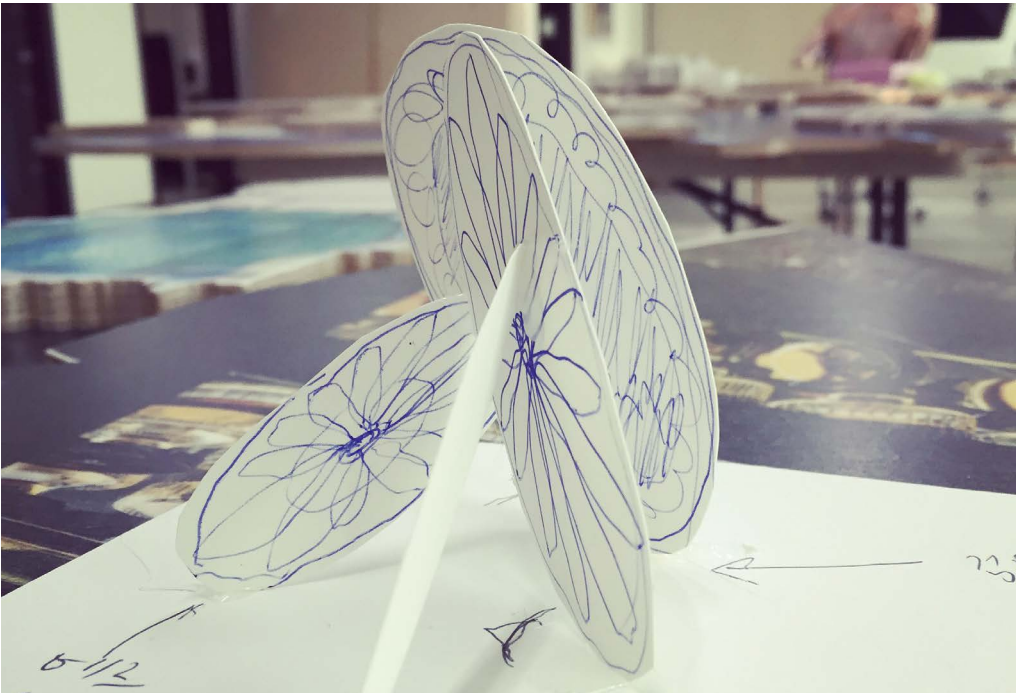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 2월 4일까지 권오상 작가의 개인전 <릴리프 릴리프 Relief Relief>를 소개한다.

조각을 전공한 권오상 작가는 사진 이미지를 입체화하여 조각의 전통성을 전복하는 형식의 사진 조각 형식을 시작으로 평면과 입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초기의 대표작으로 모델을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입체로 재구현하는 <데오도란트 타입 Deodorant Type> 시리즈는 1998년 대학 학부 재학시절부터 연구하고 있는 조각 장르의 무게, 부피, 표면 이미지 간의 긴밀한 지점을 충돌시키고 재배열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작가는 광고 사진을 통하여 가장 돋보이는 가치를 드러내는 사물로서 재현된 평면 이미지를 선택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혼란스러운 평면 이미지들의 중첩으로 형성되는 얇은 공간을 포괄하는 <더 플랫 The Flat>시리즈를 만들었으며, 오토바이의 부분을 재현하는 ‘토르소’, 자동차 ‘람보르기니’ 등 직접 구조물을 재현하여 정통 조각의 아우라를 극대화하는 <스컬프처 Sculpture>시리즈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최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릴리프 Relief> 및 <뉴 스트럭처 New Structure> 시리즈는 그가 다루어 온 이미지의 재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간 속에서 작용하게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전시 <릴리프 릴리프 Relief Relief>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조 형식은 선택된 평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 평면적 성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축적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적 성격을 획득한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줄 <릴리프>연작은 2016년 초반의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부조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이 연작에서 다루는 이미지들을 다국적 잡지 ‘월페이퍼 매거진’에서 발췌하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취재하고 판매되는 ‘월페이퍼 매거진’은 마치 그 달에 지구에 등장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장 그럴싸한 사물들의 아카이브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선택되는 이미지들의 크기와 형태, 색에 따라 작가의 즉흥적 배치로 만들어지면서 이들의 평면성이 ‘부조’라는 조각 형식에 조응하는 작가의 방법론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또한 <뉴 스트럭처> 연작 중 하나를 보여주게 되는데, 2014년에 시작된 이 시리즈는 칼더의 스테빌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뉴 스트럭처> 시리즈는 전작인 <더 플랫>에 등장하는 오브제 이미지 중에서 선택한 이미지를 입체적 구조물로 구현하는데 이번엔 중점적으로 선보이게 되는 부조 작업과의 연관성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작업 프로세스 스틸컷_권오상

© 인터뷰

Q. 조소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덩어리, 무게, 공간, 조형적 균형 등에 대한 전통적 성격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작가님은 학생 때부터 사진조각 형식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통 조각의 성격을 뒤집는 방식을 연구하였던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요?

A. 작업을 시작한 초기에도 의식적으로 전통조각의 성격을 뒤집는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조각을 지금 당장 손쉽게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시리즈가 계속 만들어진 이유들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방식들이 전통적인 조각의 성격에 반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듯 합니다.

Q. 작가님은 항상 전통 조각가들이나 조각 자체의 조형성 등에 대한 경의심을 언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스컬프처> 시리즈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리즈를 만든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종종 언급하신 로댕과 같이 특별히 좋아하는 조각 작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실 수 있으신지요?

A. 로댕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조각가였고, 왜 이런 작품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해 흥미롭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더 스컬프처> 시리즈를 만들기 전까지 ‘사진조각’ 과 ‘플랫’ 작업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조각에 대한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지만 드러나는 재료가 사진인 관계로 사진가라고 칭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관객이 원하는 조각이란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조각가의 혼이 담긴듯한 티치와 헤라자국을 많이 넣었습니다.

Q. 최근 진행하고 있는 <릴리프(부조)> 시리즈는 기존 플랫 시리즈에서 이미지들의 레이어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던 모호한 공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화 되면서 이미지 자체에 부피감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 부조 형식과 또 다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합니다.

A. 부조는 주로 고전 건축물의 표면에 놓여지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시대적인 부조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뉴스트럭처> 시리즈에서 발전된 방법이기도 한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미지를 늘어놓고 즉각적으로 구성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들을 발전시켜서 오브제들의 이미지가 삭제된 실루엣만으로 구성되는 부조도 이번 전시에 등장하게 되는데, 덩어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얼마 전 서울 아라리오 갤러리 일층 전시실에서 갤러리의 맞은편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야외에서 보이는 칼더를 의식하여 치즈 이미지로 구조를 만들었던 <뉴스트럭처>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칼더의 작업과 대체되는 혹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작가님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A. 2014년 페리지 갤러리의 의뢰로 건물 로비 공간에 모빌을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칼더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모빌보다는 스테빌에서 무엇인가 내 작품과 관련된 실마리가 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테빌의 구조를 그대로 쓰고, 그 위에 <더 플랫>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끼워 넣으면 또 다른 방식의 추상조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간단한 조각으로 만들어진 ‘플랫’ 작품 안에 관객이 들어가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작가님의 작업은 많은 명품 브랜드와 유명인들을 모델로 하거나 대중예술 스타들과의 일종의 프로젝트성 협업을 통하여 선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적 생산물과 작품 형식을 결합시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철학같은 것에 대하여 들을 수 있을지요?

A. 상업적 생산물 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사물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사물들은 대부분 공장시스템을 통한 공산품이고요, 이런 것들이 작품에 등장해서 정물조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물이 등장했던 <더 플랫>,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등장했던 <더 스컬프처>시리즈, 그리고 지금의 <릴리프>나 <뉴스트럭처>까지도 어떻게 보면 모두 동시대적인 정물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물조각을 계속 만들고 있고, 브랜드 업체는 계속 물건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 REVIEW with PHOTOS |

2016 작가미술장터

블라인드 데이트 Blind Date

2016. 12. 3 토 - 2016. 12. 7 수



연계행사1. 스튜디오 교신
정연두&고재욱 작가토크

남서울예술인마을의 발자취와 남현동 예술인마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했던 활동 등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016.9.24)

* QR Code를 통해 작가토크와 라운드 테이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행사2. 컬렉터's 라운드 테이블

미술애호가 세 분과 함께 라운드테이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슈퍼 이베이어 (Super Ebayer)로서 '취향'과 '소유'에 대한 작업을 선보이는 이미혜 시각예술가와 수집한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말씀해주신 김다은 기획자, 관람객과 후원자로서 미술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은주 윌링앤딜링 공동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2016.11.4)



연계행사3. 남서울예술인마을 오픈 스튜디오

남서울예술인마을 작업실을 개방하여 2016 블라인드 데이트에 참여한 남서울예술인마을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도록, 작품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6.11.26~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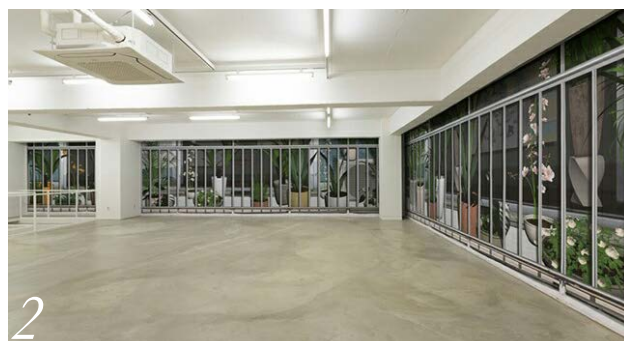
본 행사. 블라인드 데이트

44명(팀)의 작가들의 220여점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전시와 <인형으로 부하 만들기>, <우주여신 소원부적>의 이벤트 및 KLMAB의 팝업 스토어 등과 함께 진행된 블라인드 데이트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16.12.3~12.7)

네이버문화재단 '헬로!아티스트_아트 어라운드'
<튀어나온 돌과 펜스>

강현선, 호상근

2016. 11. 11 금 - 2016. 11. 30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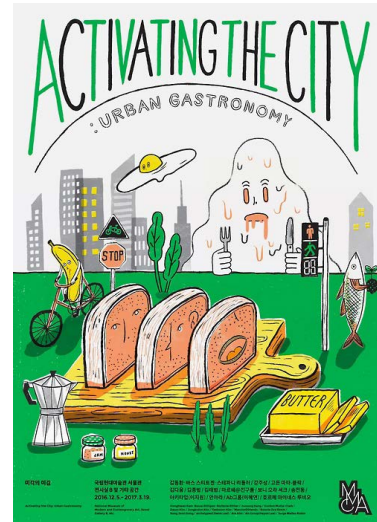


큼지막한 베란다 펜스는 나를 가로막았다. 누군가의 사적 공간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엔 가로수만한 화초도 장애물이 되었다. 인공적인 화면이 신기해 뒤로 물러나고 다가가기를 반복하며 화면의 끝에 다다랐을 때 강현선 작가는 비로소 영상으로 자신의 기억 속으로 입장시켜 주었다. 호상근 작가의 작은 프레임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물들의 풍경은 참으로 친절하다. 각 장면을 보면 기억이 교집합되는 장면이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제목은 또 얼마나 담백한가. 이렇게 두 작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나 온 나는 오늘 귀갓길에 '나에게로의 초대-정경화'를 들을 것이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 1 | 오픈 리셉션, 11월 11일
- 2 | 작품 설치 사진_강현선
- 3 | 작품 설치 사진_호상근
- 4,5 | 아티스트 토크, 11월 19일 (with 이성희, 최정윤)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김다은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미각의 미감> 전시에 참여합니다. 전시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또한 2016년 12월 23일부터 인사미술공간에서의 <이삭날> 2인전에도 참여합니다.



변상환 작가는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에서 2016 서울포커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시에서 2016년 초록 시리즈 -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 서늘한 평화, 차분한 상록을 잇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12월 20일부터 2017년 3월 19일까지. 또한 파주출판도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11월 16부터 12월 7일까지 열린 기획전 <우연 사각>에 참여하였습니다.



홍승혜 작가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에서 개인전 <점·선·면>을 가집니다. 전시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4월 16일까지.



연남동에 오세원 기획자가 설립한 CR Collective의 개관 전시 <디스토피아(Dystopia) 2016 : 사라진 생명>에 김수영, 강석호 작가가 참여합니다. 전시 기간은 2016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월 25일까지.

아마도예술공간
AMADO
ART SPACE
-
조해진
JO HYEJIN
한성우
HAN SUNGWO

12.12
-1.08

4

2016년 4월에 개관한 아마도예술공간은 다양한 세대의 미술인들이 모여 서로의 창작과 예술활동을 응원하면서 미술공간과 비평을 활성화하고, 창작과 비평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열린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비평의 예술공간입니다. 70-80년대 한국의 도시공간을 형성했던 단독주택의 전형적인 외관과 구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마도예술공간은 공간이 지닌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화요일, 금요일 등상의 전시에서 벗어나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한성우 작가는 네이버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헬로!아티스트 아트 어라운드 네 번째 시리즈인인 <표면 위, 수면 아래>에 참여합니다. 아마도예술공간에서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노은주, 박선민 작가는 서울시립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1기에 선정되었습니다.

| W&D NEWS |

이경아 코디네이터는 다가오고 있는 2017년도를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하기 위해 홀로 연말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몸이 낭만적이거나 혹은 잔잔 여행이 예측되고 있다.

조근준 인턴은 연말까지 계약해야 하는 LH 대학생전세대출에 추가당첨되어 군자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 돈은 있으나 집 구할 시간에 쫓겨 마음이 급한 요즘 정작 당사자는 덤덤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래가 되겠다는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이번 겨울여행지를 속초로 정하고 스키다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횃집을 고르며, 꿀꺽거리고 있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SPACE:
WILLING
N
DEALING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 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이경아, 조근준, 한황수
감 수: 김인선
발행일: 2016년 12월 15일